

“조선 후기 실학은 ‘실학적’이지 않았다”

‘실학은 實學인가’ 펴낸 서영이 전남대 박사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연구
“철학적 사고 제약 경향있어”
동양철학 전반 재구성 포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실학’(實學)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당시의 실학을 ‘실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 후기의 실학이 현실적인 학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인식해온 게 보편적인 양상이다. 일반인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실학은 대체로 ‘18세기를 전후해 당대 모순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등장한 전근대적 사회개혁사상’으로 규정된다.

저자에게선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배어나왔다. 부드러운 속에 단단한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철학은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고 인식된다. 더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부다. 저자는 열핏 어려워 보이는 실학에 대한 면들을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가 있다. 전남대 철학과 강사인 서영이(49) 박사는 “실학은 과연 현실의 학문인가?”라는 반성적 질문을 던졌다. 최근 ‘실학은 實學인가’(예문서원)라는 연구서를 발간한 서 박사는 실학이 과연 우리의 경험을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문인지 되묻는다.

“책에는 박사는문을 쓰면서 공부했던 내용, 학위를 받고 난 이후 연구했던 결과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학이 ‘유학의 철학적 진화에 성공했는가’를 되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저자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실학의 가정들에 대해 다르게 읽기를 시도했다”며 “기존의 실학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철학적 함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조선 후기 실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있었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사고를 제약하는 경향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철학적으로 실학적이

않았다는 뜻이다.

저자에 따르면 그러한 제약의 매개로 ‘리’(理), ‘상제’(上帝), ‘운화기’(運化氣)라는 초월자를 이론의 심장부에 두었다. 유형원과 이익은 ‘리’를 정약용과 최한기는 ‘상제’와 ‘운화기’를 상징해 합리성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박사는 그것들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념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천 실용에 왜 초월적 존재들이 필요한 지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저자는 “실학자들은 공소한 형이상학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근세 지향, 경제치유의 실용주의적 도약은 초월적 실체의 가정으로 인해 이론적 난관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저자가 박사과정까지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노예와 같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32세에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박사는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더 깊게 그리고 습관화된 질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3개를 질문한다면,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2~3개는 더 묻는다고 볼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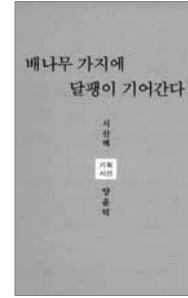
서 박사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 전반을 재구성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동양철학의 가정들은 우리의 삶과 사유방식을 왜곡하거나,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태극·운화기, 본연지성·사단 같은 초월적·정신적 존재들은 관념의 산물일 뿐이지만, 동양철학에서는 인간이 구현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너머 새로운 질서를 꺼내는 시상

양윤덕 새 시집 ‘배나무 가지에...’



“시와 나는 결코 선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는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플 때나, 행복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굳이 선서한 것도 아닌데 한 눈 한 번 팔지 않고 내 모든 걸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주었다.”

시 쓰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시인이 있다. 창작의 고통이 가르쳐준 삶에 대한 지혜일 듯했다.

시산맥 기획시선으로 신작 시집 ‘배나무 가지에 달팽이 기어간다’(사진)를 펴낸 양윤덕 시인의 얘기다. 양 시인은 “나는 그를 통해 사랑하는 방식, 적절한 표현과 인내를 더하게 터득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펴낸 시집에는 비유와 통찰, 이미지 등이 조화를 이룬 50여 편의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낯선 이미지를 매개로 대상을 형상화하는 화자는 고유한

생철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프랑스 시인 랭보는 시인을 일컬어 ‘견자’(見者)라고 했다. 즉 “일상 너머의 일을 들여다보고 통찰하는 자,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꺼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디를 가시게요? 어디를 어떻게 가시든/ 그 점액질의 속도를 제대로 내시든/ 달까지는 어렵도 없을 거예요.// (중략) 가다 지치면 문 닫고/ 툭툭 떨어지는 낙과의 속도나 깨지면서/ 달달한 속내를 채우는/ 배들의 공간이나 배우세요.”

표제시 ‘배나무 가지에 달팽이 기어간다’는 이색적인 감각과 관조의 시선이 어우러져 생의 의미를 환기한다. 화자의 눈에 비친 나무는 ‘견자’의 이미지로 수렴된다. 시인인 유정이 박사는 해설에서 “나무는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자신이 되기도 하면서 고독한 유기체로서의 사유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전북 옥구 출신의 양 시인은 2012년 개간 ‘시와 소금’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흐르는 물’을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회원이며 화요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래봉사단, 내일 봉선동서 마이크 잡습니다”

음악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사진)이 520회 특별무대를 펼친다. 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민들레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퓨전민요·판소리·민요·대중가요·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볼거리로 꾸며진다.

성민하, 장재진, 채나리, 최진필, 강성, 김산옥 씨 등이 초대가수로 무대에 오른다.

이날 특정 공연에 앞서 식전행사에서는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효중 단장은 “경로효친을 되새기는 5월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노래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단 26주년을 맞은 ‘사랑 실은 노래



봉사단’은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주부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매월 한차례씩 방문해 현재까지 519회의 공연을 펼쳤으며 약 9억5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문의 062-654-0576.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남도음식 맛보고 인문학 강좌·국악공연도 즐겨요

관광공사 ‘음식 인문학 여행’

5월 참가자 선착순 모집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봄 여행주간(4월28일~5월13일) 동안 남도의 한옥마을에서 숙박하며 지역의 대표음식을 직접 만들어 맛보는 남도의 봄 ‘음식 인문학 여행’을 선보인다.

먼저, 음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왕인 박사 탄생지로 유명한 영암의 구림마을에서는 선비들이 즐겨 먹었던 낙지 호랑구이와 연잎 차를 만들어보는 영암 ‘선비 밥상’을 ▲나비의 고장 함평 모평마을에서는 함평의 한우와 봄나물로 만드는 함평 ‘나비 밥상’을 ▲산야초로 유명한 화순 양정마을에서는 화순 ‘약초 밥상’을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대통구이 담양 ‘슬로 밥상’을 맛볼 수 있다.



인절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공연 ‘달빛음악회’ 등이 열려 남도의 풍류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함평 모평마을 주민들이 선보이는 ‘다듬이소리공연’과 영암 구림마을 회관에서 인절미와 연잎 차를 마시며 즐기는 판소리는 특별한 감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을별로 한과 만들기, 딸기 따기, 인절미 만들기, 해설사와 함께하는 ‘짜콕짜콕 마을 한바퀴’ 등의 체험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예약 및 문의는 영암 구림마을(061-472-0939), 함평 모평마을(061-324-9433), 화순 양정마을(061-372-6704), 담양 창평마을(061-380-3807) 및 각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봄 여행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계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문의 062-371-1580.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공예문화예술체험학교’ 5일 개강...참여자 모집

공예 명장과 명인들이 함께하는 ‘2018공예문화예술체험학교’가 5일부터 무등산 증심사 입구 전통문화관에서 문을 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빛고을공예문화마루(이사장 최석현)가 주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후원하는 ‘2018공예문화예술체험학교’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10개 분야에 걸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명장, 명인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 공예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작품을 볼 수 있는 공예문화예술시장 플리마켓, 무형문화재, 명장, 명인을 초대하는 공예품 제작시연, 남도

의례음식장인들과 함께하는 음식과 공예(그릇)의 만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체험할 수 있다.

5일에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이자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인 이복수의 가야금 안주 만들기 시연이 진행된다. 또 무형문화재 제17호 민경숙 남도의례음식장의 ‘마음의 공간’에 5월의 향기를 담다’라는 주제의 꽃전과 연화차 시연은 음식과 공예품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다.

9월에는 광주시민과 지역 공예인이 함께하는 공예문화예술 워크숍도 준비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홈페이지(blog.naver.com/2225725)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51-57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